

검색

현대불교

f

기획 > 기획특집 > 상월결사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중흥 기대 교차

노덕현 기자 | 입력 2021.10.17 20:29 수정 2021.10.17 20:41 댓글 0



10월 17일 울주 속영지서 자자회 개최



자자회를 마치며 순례단이 회주 자승 스님에게 합장 빈배로 예를 올리고 있다.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 17일 순례 회향을 하루 앞두고 자자회를 열었다. 16일 조별 자자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자자회에서는 전날 조원들이 써서 낸 순례 과정에서 참회와 함께 불교 중흥을 위한 결의 등이 모아졌다.

최신뉴스

[영상] 천리순례 15일차, 상월결사-조계종 토크콘서트 개최



[영상]상월결사 삼보순례단, 경북서 경내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사노위, 무연고사망자 추모위령제 봉행



부산 팔관회, "호국불교와 코로나19 극복"



선학원미래포럼, 법진 이사장 재선출에 청

인기뉴스

- 1 最古 금속활자에 묻힌 '직지' 성보 가치
- 2 '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 3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자"
- 4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3조 조장 법원 스님이 조원들의 참회와 앞으로의 결의 등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날 3조 조장 법원 스님은 “한분은 무릎에 물이 차고, 한분은 근육이 찢어짐에도 대중의 힘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며 “한분은 사찰의 일로 지자체장을 만날 일이 있는데, 회향 후 순례단 모자 등을 그대로 쓰고 만나기로 했다. 조원 전원이 상월결사 인도 부처님 성지순례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해 대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7조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장운정 씨가 발표했다. 장 씨는 “저희 조 모두 삼보사찰 순례 참석하게 해주신 회주 스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말로 안해도 느껴지는 자상한 마음, 좋은 도반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마음 등이다. 이번 순례로 인하여 순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했다. 인도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5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studio GONG

[현대불교NEWS] 천리순례



[영상] 상월결사-조계종 포교원 토크콘서트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 5조 조장 지해 스님은 “우리 조원들 모두 포교 원력 살아났다는 말을 했다. 긴장과 참회와 발원이 교차하는 순례”라고 평가했다. 지해 스님은 “조원들이 혼자 걷지만 함께 가는 길임을 느꼈고, 앞이 흐리다고 생각했던 불교가 삼보 순례 천리순례길로 미래가 밝게 보인다”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따르자”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숙영이나 휴식 등에 있어서 흐트러진 모습을 참회하는 발언도 나왔다. 2조 조장 설도 스님은 “순례단이 떠난 자리가 수행자 같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순례 후 승려 위위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었다. 나부터 참회한다”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순간들이었다”고 했다.



이날 자자회에서는 참회, 기대 등과 함께 앞으로의 순례 개선점도 논의됐다. 발우를 활용한 공양의식 정립, 새롭게 만들어 이번 순례에서 활용된 결사 공양계의 보급 등이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자자를 묵언으로 함께 했고 대중들의 인사를 받으며 이날 행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윤재웅 동국대 교수가 시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상월결사는 회주 자승 스님의 선문답을 주제로 윤재웅 동국대 교수가 쓴 시집 '어쩌라구'를 공개하고 순례단에 보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승 스님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아져"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우중행선(雨中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치 되새기다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포교콘서트]1.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볍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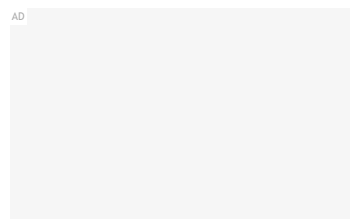
이시각추천뉴스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에 부활한다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중흥 기대 교차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대행사상, 인문사회·자연과학으로 논하다
 '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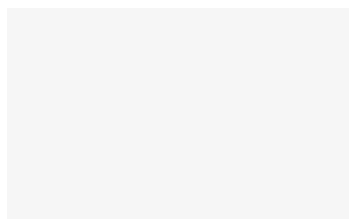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에 부활한다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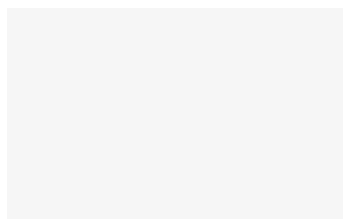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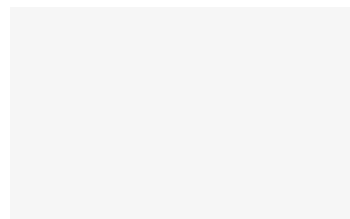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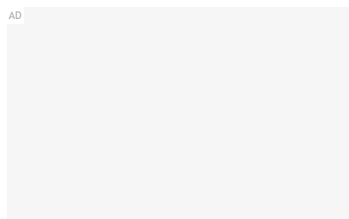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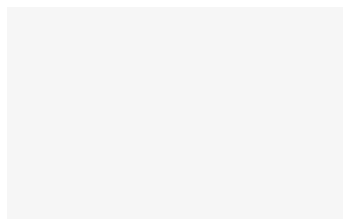
가을 산사서 생명나눔 선율의 향연이 펼쳐 지다



깃파나, 찌다뽕조따왕을 교화시키다



주식계좌에 90만원 있다면 '이렇게'해서 돈 벌자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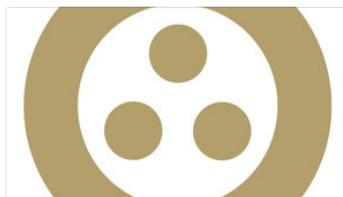
주요기사



광명사, 불교 스피치로 포교 강조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성파 스님, "종정 후보 추대 대중의 뜻에 따라"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UPDATED. 2021-10-18 19:27 (월)

로그인

회원가입

비밀번호찾기

 **제보하기**

아이디찾기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